

중국 조선족의 우리 고전문학사 기술태도와 그 비판

김 승 찬*

차 례

- | | |
|---------------|-------------------|
| 1. 서 론 | 3. 문학사 서술의 체제와 변경 |
| 2. 문학사 서술의 태도 | 4. 결 론 |

1. 서 론

우리와 이데올로기를 달리하여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추세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자, 비로소 중국 연변지방 조선족의 한국문학사 저작들이 1988년과 1989년에 소개되어 그쪽의 한국문학사의 연구방향과 그 성과의 실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쪽의 경우, 연변대학의 교수진 한두 사람은 해마다 우리 문학과 역사를 단기간에 연수하기 위해 김일성대학에 유학하였고,¹⁾ 또 연변대학에서는 『한국문학사』나 『한국문학독본』을 모두 북한의 것을 가져다가 교재로 사용했으므로²⁾ 그쪽의 한국문학사는 북한의 문학사연구 성과물을 참고하여 연구·서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이채진, 중국안의 조선족, 청계연구소, 1988, p. 118.

2) 최응권, 中國延邊에서의 韓國文學研究과 그 전망, 한양어문연구 12집, 한양대 한

술된 것이다.

그래서 그쪽의 한국문학사의 서술태도나 서술체제를 검토함에는 북한의 문학사를 참조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드러나는 편차가 갖는 의미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해 북한의 문학사 저작물도 아울러 검토의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대본은

허문섭, 『조선고전문학사』, 료녕민족출판사, 1985 : 세계, 1989.1.

박충록, 『조선문학간사』, 연변교육출판사, 1987 : 열사탐, 1988.6.

두 권이고, 북한의 문학사로는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김춘택, 『조선문학사 I』,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2 : 천지, 1989.2.

두 권을 위주로 하였고, 이외에 중국조선족 교수가 펴낸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에서 서사문학과 구전문학의 호상관계와 그 발전의 합법적성』,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4.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연구』, 료녕민족출판사, 1993 : 한국문화사, 1993.

김성우 · 김창학, 『문학학습사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3.

채미화, 『고려문학미의식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4.

네 권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많이 활용한 저작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허문섭, 『조선고전문학사』 → 『고전문학사』

박충록, 『조선문학간사』 → 『간사』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 『문학사』

김춘택, 『조선문학사 I』 → 『문학사 I』

2. 문학사 서술의 태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문학은 작가의 심미화와 전형화를 거친 산물인 것으로 하여 작가의 체험과 감수, 세계관과 미학적 이상을 담게 되므로 특정한 시대적 특색과 민족적 특색을 갖게 되며 따라서 사상 정치적 경향을 띠게 된다³⁾고 정의하고, 계급사회에서의 문학은 작가의 계급성에 의하여 대체로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되므로 모든 사회적 의식형태들이 그러하듯 문학도 지배계급(착취계급)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동적 문학과 인민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선진적 문학으로 갈라지는데,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문학은 전형적인 형상으로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높은 인식적 교양적 의의를 가질 뿐 아니라 인민들의 심미적 수요도 다방면으로 만족시키게 되나, 반동계급의 문학은 사회생활을 왜곡하고 퇴폐적인 사상 정서를 산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영혼을 부식시키며 사회의 전진을 가로막는다⁴⁾고 전제한다. 그리고 문학 예술의 발전 역사는 바로 계급투쟁을 반영한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의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학사 기술은 결국 반동문학 곧 지배계급의 퇴폐적인 사상 정서를 반영하고 인간의 영혼을 부식시키며 사회의 전진을 저해하는 보수주의 문학의 기술보다는 인민이나 진보적 작가에 의해 산생된 선진적 문학의 역사 기술에 역점을 둔다.

중국 조선족의 문학사가도 위와 같은 문학사 기술태도를 가지고 북한의 문학사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문학사를 기술하되, 모택동이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연설>에서

“문학예술 중에 옛사람과 외국인의 것을 아무 비판없이 생경하게 그대로 옮기고 모방하는 것은 가장 장래성 없고 가장 사람을 해치는 문학교조주의이며 예술교조주의다.”⁵⁾

라고 한 문학예술창작에서의 문학교조주의적 태도를 극력 비판한 그의 말을 문학사 기술에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 그들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쓰여진

3) 김성우·김창학, 문학학습사전,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3, p. 1.

4) 김성우·김창학, 앞의 책, p. 2 참조.

5) 모택동, 이옥연 역, 모택동의 문학예술론, 논장, 1989, p. 114.

북한 문학사와는 차별성 있게 문학사를 기술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발간한 『문학사』에서 향가 「안민가」에 대해

“노래의 사상적 지향은 임금의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을 돌보며 신하와 백성은 임금의 ‘어진 정치’를 받들고 그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래에서는 봉건 통치배들이 안일과 사치만을 일삼고 출세와 공명을 탐내면서 정사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마구 탄압하고 착취하여 나라에 큰 혼란을 조성하고 있던 당대의 현실을 엿볼 수 있게 하며 국가통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봉건왕에 대한 은근한 비난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

라 하여 작품에 반영된 당시의 봉건통치배의 타락, 부패상과 봉건왕의 무능성을 강조한 것에 반하며 『고전문학사』에서는

“시는 이같이 유교의 봉건적 명분사상과 그에 기초한 ‘인민치세’의 왕도주의적 정치이상을 노래하면서 봉건적 신분-계급관계를 공고히 하고 군란해진 봉건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작자의 정치적 지향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시는 당시 바야흐로 격화되기 시작한 신라사회의 모순과 도처에 유민들이 방황하고 있던 혼란한 사회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위정자들의 부패한 정치를 은근히 비판하고 있다. …… 「안민가」는 작자의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적 경향과 함께 10구체 향가의 전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라향가의 대표적 작품의 하나로 되고 있다.”⁷⁾

라 하여 북한 문학사가의 견해와는 달리 작품에는 봉건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작자의 진보적 사상경향이 들어있다고 분석·평가하였다.

맹사성의 연시조 「강호사시가」와 이현보의 「어부가」에 대해서도 『문학사』에서는 맹사성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를 이조봉건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태평성세로 이상화하고 왕의 은덕을 극구 찬양한 반사실주의적이며 반동적인 작품이라⁸⁾ 평가하였고, 『문학사 I』에서는 주제사상적 내용에서 봉건통치계급의 보수적이며 반동적인 사상을 담고 있으며 현실을 미화하고 왜곡한 것으로 하여 이 시기 시문학의 발전에 저해를 주었다⁹⁾라고 혹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 76.

7) 허문섭, 조선고전문학사, 룡녕민족출판사, 1985, p. 68.

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280.

9) 김춘택, 조선문학사 I (2판),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5, p. 281.

고, 『고전문학사』에서는

“이 부류의 시들도 결국은 벼슬길에 나서면 치군택민하고 벼슬을 그만 두면 조월경운한다는 유가적 관념과 그 현실도피적인 경향을 초탈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그들 시가에서의 농촌생활과 향토자연에 대한 찬미는 대부분 관조적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유학자들의 시가(시조, 가사)는 16세기 이후 조선민족어 시가형식의 발전에 일정한 적극적 작용도 놀았다.”¹⁰⁾

라고 하여 이들의 시조는 16세기 이후 우리 시가형식의 발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철의 전후「미인곡」에 대하여서도 『문학사』에서는

“가사 「사미인곡」과 그의 속편인 「속미인곡」은 사랑 노래의 형식을 빌어 왕에 대한 ‘사모’와 ‘충성’을 노래한 작품들이다. 이 가사들에서 ‘임’은 곧 왕을 의미하여 ‘임’에게서 소박당한 여성-서정적 주인공은 곧 시인 자신이다. 봉건 유교 사상에 깊이 물젖어 있었고 유교교리를 움직일 수 없는 생활규범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시인 정철의 사상정신 세계의 시적 재현으로서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봉건적인 ‘연군’과 ‘충군’의 사상으로 일관된 본질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¹¹⁾

라 하여 전후「미인곡」은 정철이 양반관료라는 입장에 서서 봉건적인 ‘연군’과 ‘충군’의 사상을 노래한 작품이라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는데, 「간사」에서는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도 사실주의와 낭만주의를 잘 결합시켰다. 시인은 환상적인 수법을 써서 임을 그리고 있다. 여기의 임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 하나는 사랑하는 임이고 다른 하나는 임금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충군(忠君)을 다만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보아야 한다.”¹²⁾

라 하여 전후「미인곡」의 ‘임’에 대하여 북한 문학사가들은 단의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후「미인곡」을 애국주의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10) 허문섭, 앞의 책, p. 232.

1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288.

12) 박충목, 조선문학간사, 연변교육출판사, 1987, p. 136.

이와 같이 중국의 조선족 문학사가는 북한의 문학사 연구성과를 참조하되, 그들 나름대로 한국문학사를 기술하였다.

그러면 중국의 조선족 문학사가의 한국 문학사 서술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첫째,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인민성의 강조다. 문학의 인민성이란 '문학작품에 반영된 인민대중의 이해관계와 사상적 감정 지향'이다. 문학작품에서의 인민성은 ① 일정한 역사시기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활에서 의의가 있고 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회 정치적 문제들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데서, ② 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생활현상들을 그 시대의 선진적인 사회 이상에 비추어 정확하고 진실하게 묘사하는 데서, ③ 인민들의 생활에서 주요한 본질적인 생활현상들을 인민들의 사상감정에 알맞게 표현하는 데서, ④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미학적 이상에 맞는 예술적 형식과 표현수단을 옹계 이용하는 데서 표현된다.¹³⁾

그리고 문학작품이 소여시기 인민들의 생활과 요구와 염원을 비교적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즐기는 예술적 형식도 갖추고 있는 데서 인민성을 갖는다. 따라서 고전문학 가운데서는 인민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문학작품은 인민구전문학작품이며, 그 다음 인민구전문학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소설작품 「춘향전」·「심청전」·「흥부전」 등에 드러나며 개인적 창작작품에도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향가인 「서동요」에서 인민성을 검증하는 예를 북한의 『문학사』에서 보면,

“서동요는 당시 인민들 속에서 불리우던 구전가요를 향찰표기법으로 적은 것이고 …… 이 노래는 그 자체로서는 선화공주가 서동이라는 총각과 남몰래 사랑을 맺고 있다는 것을 풍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를 캐어 팔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총각이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왕으로 되었다는 내용의 서동설화와 연결시켜 볼 때 이 노래의 밑바닥에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려는 당시 사람들의 꿈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근로하는 가난한 총각이었던 서동을 공주와 결합시키고 왕으로까지 되게 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적 제한성에서 온 것이었다.”¹⁴⁾

13) 김성우·김창학, 앞의 책, pp. 5-6.

14)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62.

라 하여 「서동요」와 결부된 서동설화를 통해 인민성을 점검하면서 당시 인민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회정치적 문제를 직접 작품이나 설화에 반영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세계관을 드러냄으로써 인민성 반영에 계급적으로 일정한 제한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고전문학사』에서 보면,

“「서동요」는 신라 진평왕대를 배경으로 한 「서동설화」와 결부되어 있는 민요를 향가에 옮겨놓은 것으로서 노래의 기저에는 고대 인민들의 근로생활과 삶의 행복에 대한 소박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이 안반침되어 있다.”¹⁵⁾

라 하여 서동설화와 결부되어 있는 「서동요」에 대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적 제한성을 언급하지 않고, 그 기저에 고대 인민들의 근로생활과 행복한 삶의 염원(소박하고도 아름다운 환상)이 안반침되어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인민성이 있음을 은연히 내비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문학사』에서는 계급적 안목에서 작품을 분석·평가하는데 치중하였다면, 『고전문학사』에서는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 지향성을 중시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 인민성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가 ‘문학예술은 인민에게 복무되어야 하는 것’이라 하였을 때 ‘복무’는 문학작품이 사람에게 지식과 건전한 사상을 줄 뿐 아니라 정서교양도 힘있게 실현시켜 주는 수단으로써의 기능을 함의한다.

그리고 ‘문예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라 할 때¹⁶⁾ 정치이념의 지향성과 실천성에 따라 문학작품의 분석 평가도 달라질 뿐 아니라 인민성 점검의 기준도 바뀌게 마련이다.

북한의 문학사 기술 태도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인민성이 가장 풍부한 구전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창작된 「심청전」을 보면, 『문학사』에서는 김일성이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연극을 보고 ‘이 소설의 작가는 당시 인민들의 암담한 처지를 눈먼 심봉사의 형상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 주려고 하였으며, 심청이 왕비가 되고 심봉사가 눈을 뜨게 한 것은 당시 인민들의 한결같은 희망을 보여주는 동시에 반드시 그러한 희망찬 사회가 오리라는 작가자신의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서 죽었던 심청이를 용궁을 거쳐

15) 허문섭, 앞의 책, p. 63.

16) 모택동, 이육연 역, 앞의 책, p. 121.

연꽃 속에서 살아 나오게 한 것은 당시 사회역사적 제한성에 기인된 것'¹⁷⁾이라 말한 것에 따라,

“『심청전』은 본질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건시기 인민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와 인정세태, 행복한 생활에 대한 동경 등을 민족적 특색이 진하게 보여주고, 가난한 인민들과 부유한 계층의 대조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대 봉건사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폭로한 것으로 하여 문학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⁸⁾

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문학사 I』에서도

“소설 『심청전』은 이상과 같은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17세기 이후 고전 소설의 발전에서 의의를 가진다. 소설은 주인공 심청과 심봉사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봉건시기 특히 이조 말기 천한 신분의 인민들의 생활처지와 그들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예술적으로 보여주었다. 소설은 성격묘사를 비교적 세련된 우리말을 가지고 하고 있으며, 작가의 지문과 대화도 회화에 접근하였다. 소설은 인간묘사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이조 말기 우리나라 소설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¹⁹⁾

라 하여 『심청전』을 불교에서의 영험을 내세운 제한성과 심청의 효성을 강조한 나머지 그를 여중군자로 이상화한 데서의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인민성이 높은 작품으로서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런데 『조선문학사』에서는 김일성이 ‘이 작품의 기본 줄거리는 심청이가 소경인 자기 아버지의 눈을 띄우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팔고 물에 빠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다. 이 작품 역시 오늘에 와서는 교양적 가치가 별로 없다’라고 비판함으로써 앞의 두 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심청전』을, 심청이 지극한 효성과 부지런하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도 당시 봉건사회제도하에서 절실한 사회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못하고 도덕윤리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식간의 봉건적인 효도를 기본으로 취급한 것으로서 오늘에 와서는 그 교양적 가

1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448.

18)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452.

19) 김춘택, 앞의 책, p. 296.

치가 별로 없다.²⁰⁾라고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작품의 교화적 가치성을 달리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전문학사』에서는

“『심청전』은 또한 이 시기 다른 판소리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그 슈제트 구성에 있어서 고전감래식의 상투적 수법을 극복하지 못했으며 언어구사에 있어서도 어려운 한문투나 전고들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등 결함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심청전』은 현실 반영의 사실주의적 수법과 결합된 낭만주의적 구상에 의하여 봉건시대 조선인들의 아름다운 인정세계와 윤리도덕, 삶의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지향을 민족적 색채가 진하게 반영한 대표적인 민족고전소설의 하나로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²¹⁾

라고 하여 심청전이 슈제트 구성과 언어구사에는 결함이 있으나 민족적 색채(인민성)를 진하게 반영한 고전소설로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가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민족적 특성의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이다.

미학적 범주의 하나인 문학의 민족적 특성이란 매개 민족은 장구한 역사발전과정에서 그 민족의 정치경제적 처지·지리적 환경·언어 생활 양식·풍속 습관 등 제 방면에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특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특성들이 문학예술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을 민족적 특성이라 한다.

문학의 민족적 특성은 문학작품의 내용상으로 볼 때 제재·인물성격·형상적 화폭 등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형식상으로 볼 때 언어·구성·장르·표현수법 등에 나타나되, 그 중 언어에 문학의 민족적 특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므로 언어가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한 표지로 된다.²²⁾

중국조선족의 문학사가는 언어가 다르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다른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한보다도 우리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 고전 문학 작품에서 민족적 특성을 일정하게 검증한다.

북한의 『문학사』에서 진보적 시조작가인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대하여

20)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사강좌, 조선문학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0, p. 143.

21) 허문섭, 앞의 책, p. 408.

22) 김성우·김창학, 앞의 책, p. 9.

“이 시의 서정적 주인공 - 고기잡이 할아버지는 결코 가난한 고기잡이꾼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심리적 체험도 근로하는 인민의 정신세계와는 인연이 없다. 서정적 주인공의 형상은 소란한 사회현실, 어지러운 경계를 떠나서 경치를 즐기고 고기잡이나 하면서 세월을 흥겹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인의 기분과 지향을 체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썩어빠진 양반사대부들이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우리 글을 천시하고 배척하던 당시에 있어서 조선말의 풍부한 표현적 가능성을 살려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생동하게 노래한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²³⁾

라 하여 「어부사시사」에는 근로하는 인민의 정신세계와는 달리 어지러운 사회현실을 떠나서 고기잡이나 하면서 자연 속에서 세월을 보내려는 당대 양반사대부들의 기분이 반영되어 있는 제한성은 있으나, 우리말의 풍부한 표현적 가능성을 살려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경치를 생동하게 노래한 것으로서 이 시기 시조문학 발전에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는데, 『고전문학사』에서는

“「어부사시사」는 조국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함께 당대의 부패한 정치적 현실을 부정하여 나선 시인의 입장과 사상적 지향을 비교적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전반 시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그는 자기의 시조창작에서 통속적인 민간어들을 널리 활용하면서 그것을 엄밀히 선택하고 잘 다듬어서 평이하고도 간결하며 우아한 시어로 재창조하였을 뿐 아니라 …… 재래의 민간가요의 율조들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시가의 음악적 리듬을 잘 조성하였다. 예하면 ‘배떠라 배떠라’ ‘돛달아라 돛달아라’ 등과 같은 조흥구적인 첩구들과 노젓는 소리를 표현한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와 같은 삼입구들을 규칙적으로 사용하면서 시가의 경쾌한 음악적 리듬을 조성하고 시적 감흥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 이리하여 윤선도는 정철 이후 조선문학어의 발전을 진일보 추진시키고 평시조와 연시조의 형식을 가장 우미하게 발전시킨 공로자로서 중세시가사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²⁴⁾

라 하여 윤선도의 한국시가 발전에 있어서 그 공로를 강조함과 아울러 「어부사시사」의 형식을 통해 작품에 들어있는 민족적 특성을 잘 밝혀주고 있다.

세째, 한국고전문학 발전에 중국문학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강조한 점이다. 우리 민족은 역사 여명기부터 중국과 인접하여 문화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문학의 발전에 중국문학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

23)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의 책, p. 371.

24) 허문섭, 앞의 책, pp. 326-327.

해 북경의 중앙민족학원의 교수인 문일환(文日煥)은 다음과 같이 논급하고 있다.

“조선고전문학과 중국문학간의 상호침투, 영향의 관계는 특이한 사정과 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조선고전문학과 중국문학처럼 오랜 역사를 두고 그토록 밀접하고도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실로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고전문학과 중국문학이 이같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데는 그 고유의 지리,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 요인들이 있다.”²⁵⁾

라 하여, 우리 고전문학은 중국과의 지리적·사회정치적·문화적 요인에 의해 오랜 역사를 두고 중국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연변대학 교수인 채미화(蔡美花)도

“자고로 중국과 조선은 린접되어 있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과 공통한 한(漢)문화권에 속해 있는 관계로 문화적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여 왔다. 특히 한자의 수입과 유교, 불교, 도교 철학사상 그리고 고전미학리론의 수용은 조선 고대의 문화와 문학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조선 고대 문학은 유구한 중국문학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부단히 개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유구한 전통을 더욱 확고히 수립하게 되었으며 또 그 나름대로의 영향을 주기도 했던 것이다.”²⁶⁾

라 하여, 한국민족의 문학발전에 중국문학의 지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민족이 중국의 우수한 문학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한국민족문학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풍부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문학사가들은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들은 사람의 자주성·창조성·의식성의 확대발전에 순응하여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합법칙성과 미분화상태로부터 분화의 방식으로 발생하는 합법칙성, 서로 다른 종류와 형태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종류와 형태들을 발생시키는 합법칙성에 따라 발생 풍부화된다는’ 논리로 문학장르의 발생이나 발전을 기술하고 있다.²⁷⁾ 따라서 우리 문학의 발생 발전에 중국문학의 영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예를 들어 보면 북한의 『문학사 I』에서 고전소설은 ① 당대 문학 앞에 나

25)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연구, 한국문화사, 1993, p. 24.

26) 채미화, 고려문학미의식연구, 연변인민출판사, 1994, p. 45.

27) 정성우, 시대와 문학예술형태,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54-55.

섰던 인민들의 미학적 요구에 맞게 인간과 그 생활을 폭넓게 보여 주려는 탐구과정에서 ② 14-16세기의 진보적인 문학사조와 창작경향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③ 선행시기의 다양한 예술적 산문(수이전체 문학·창작우화·의인전기체 문학·패설문학)의 창작경험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²⁸⁾고 논급하고, 다음과 같이 우리 고전소설은 발생 발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예술적 산문으로부터 고전소설로의 발전과정은 우리나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조아 반동 문예학은 우리나라 소설의 발생을 다른 나라 소설의 ‘영향’과 결부시켜 보려고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견해를 반대하고 고전소설의 발생문제를 우리나라 문학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에 대한 문제로 보고 밝혀야 한다.”²⁹⁾

라 하여, 고전소설인 『금오신화』의 창작에 중국문학의 영향을 적극 부정하였다. 그런데 『고전문학사』에서는 고전소설문학이 대두하게 된 사회적 요인으로 당시 도시경제와 도시생활의 발전, 그에 따른 도시평민층의 사회미학적 요구의 증장을 들고, 이와 함께 15세기 이전의 선행 산문문학의 전통과 축적된 예술적·창조적 경험이 고전소설문학의 대두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밖에 당시 중국소설의 외적 영향도 있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그밖에 당시 중국 소설의 외적영향을 더 들 수 있다. 이미 이조 이전시기에 중국의 지괴소설이나 전기(傳奇)소설 등이 조선에 수입되었고 15세기를 전후해서는 명초의 전기소설들이 계속 조선에 수입전파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 소설문학에 대한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증강되었으며 따라서 소설의 출현이 더욱 촉진될 수 있었던 것이다.”³⁰⁾

이와 같이 중국 조선족의 한국문학사가는 한국고전문학 발전에 중국문학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논급하고 있다.

네째, 정치적 미묘한 사안을 지닌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논의를 배제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우리의 문학사나 북한의 문학사에서 발해문학을 우리의 문학으로 취급하고

28) 김춘택, 앞의 책, pp. 202-206.

29) 김춘택, 앞의 책, p. 206.

30) 허문섭, 앞의 책, pp. 252-253.

문학사에 서술하고 있다. 이는 발해의 건국자를 비롯한 주체세력이나 사회구성의 핵심세력이 고구려 유민일 것으로 단정함으로써 발해문학은 곧 우리 민족문학 유산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우리 문학사 서술에 발해문학을 포함시킨 것이다.³¹⁾

그런데 중국 조선족의 문학사가들은, 발해의 강역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발해문학도 현 중국문학을 구성하는 과거 변방민족의 한 문학에 불과하고, 또 발해문학이 중국 다민족 문화사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하나의 문학에 지나지 않는다고 현 중국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는 만큼, 한국 고전문학사 서술에서는 일단 발해문학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은 발해문학을 한국 고전문학사 서술에서 제외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병자호란과 관계된 문학작품에 대해서 되도록 논의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고전문학사』 ‘제5장 이조 중기(17세기)문학’에서 병자호란과 관계된 애국적 주제의 군담소설의 창작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했을 뿐 작품을 소개하고 분석·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국주의 주제의 시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설(詳說)하고 있다.

① “16세기 말-17세기 전반기에는 임진·병자전쟁에서의 전민족적인 애국적 항전과 인민들의 고조된 애국주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 대량으로 창작되어 인민들의 민족적 적개심과 투지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조선 중세문학사에서 애국주의 문학의 우수한 전통을 남겨 놓았다. …… 임진·병자전쟁을 반영한 주요 작품들로는 소설에서는 「임진록」을 비롯하여 「곽재우전」·「임경업전」·「박씨부인전」 등을 들 수 있고, 시가에서는 박인로의 「태평사」와 「선상탄」 등 장편가사들을 비롯하여 권필의 일련의 한시, 그리고 임진전쟁시기의 애국적 명장들과 병자전쟁시기 척화파 지사들의 시조와 한시 등을 들 수 있다.”³¹⁾

② “이 시기(17세기)에는 우선 병자전쟁에서의 이왕조 통치자들의 굴욕적인 ‘화의’를 반대해 나섰던 척화파 지사들에 의하여 애국주의 주제의 시조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병자 삼학사의 한 사람인 홍익한(洪翼漢)을 비롯하여 이명한(李明漢), 이정환(李廷煥), 임경업(林慶業), 홍서봉(洪瑞鳳) 등의 시조들이 이에 속한다. 그들의 시조는 구체적인 시적 소재에 있어서는 각기 하나 모두다 공통적으로 남한산성의 치욕적인 ‘화의’로 인한 나라의 비운에

31) 허문섭, 앞의 책, pp. 292-293.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외적의 침략과 주화파들의 매국배족적인 투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불굴의 절조를 표현하고 있고 비분강개의 정서로 충만되어 있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홍익한의 '수양산 나린 물이 이제의 원루되야 ...', 김상헌의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 '남팔아 남아이 사이언정 ...', 이명환의 '초강 어부들아 고기 낚아 삼지 말라 ...', 이정환의 '박제상 죽은 후에 임의 실랑 알 이 없다 ...' 등 시조들은 모두 시인들의 그러한 우국지정과 불굴의 절의(節義)를 노래한 것으로서 민간에 오래동안 널리 유전되었다."³²⁾

위와 같이 『고전문학사』에서는 병자호란과 관계된 반침략 애국적 주제의 군담소설로는 「임경업전」과 「박씨부인전」이 있다고만 언급한 대신, 병자호란에서 굴욕적인 화의를 반대하고 나섰던 척화파 인물들의 시조만을 일정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간사』에서는 17세기 애국적 주제인 군담소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는데 그 대표적 작품은 「임진록」·「박씨부인전」·「임경업전」 등이라고만 단지 언급했을 뿐³³⁾ 병자호란 때의 척화파 인물들이 창작한 시조에 대해선 일체 언급이 없다.³⁴⁾

이러한 서술태도는 양쪽(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도적 기피인 듯하다.

3. 문학사 서술의 체제와 변정

문학사 서술의 체제를 논급하기에 앞서 중국조선족 문학사가의 '문학사' 정의를 보면

“문학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을 문학사라고 한다. 문학사는 문학의 발생·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며,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문학작품들이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치와 의의를 규정한다. 또한 문학사는 이리저리한 문학현상들이 선행한 문학과와의 관계 및 그것이 그 이후시기의 문학발전에 준 영향들을 밝히며 창작방법·문학사조·문학유파·문학의 종류 등의 발생

32) 허문섭, 앞의 책, pp. 319-320.

33) 박충록, 앞의 책, p. 150.

34) 『고전문학사』와 『간사』에서 「임진록」에 대해선 장황할만큼 작품을 분석·평가하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개진하고 있다.

· 발전의 법칙성(역사적 합법칙성)을 밝힌다.”³⁵⁾

라 하여, 문학사의 정의와 함께 그 연구범위를 적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저들은 문학사를 서술할 때 먼저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시대구분을 해놓고 문학사를 서술하고 있다.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과 중국조선족의 문학사 시대구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

조선문학사(77)	조선문학사 I (82)
원시문학	원시문학
고대문학	고대문학
[중세문학] 1-7세기 전반기 문학	[중세문학] 세 나라 시기의 문학 (기원전 1세기초엽-7세기 전반기)
7세기 후반기-9세기 문학	발해 및 후기 신라문학 (7세기 후반-9세기)
10-12세기 전반기 문학	고려 전반기의 문학 (10-12세기 전반기)
12세기 후반기-14세기 문학	고려 후반기의 문학 (12세기 후반기-14세기)
15-16세기 문학	이조 전반기의 문학 (15-17세기 전반기) 이조 후반기의 문학 (17세기 후반기-19세기 중엽)
17세기 문학	
18-19세기 중엽의 문학	

(2) 중국조선족의 문학사 시대구분

조선고전문학사(85)	조선문학간사(87)
상고시기(기원전)문학	원시문학
	고대문학

35) 김성우·김창학, 앞의 책, p. 4.

[중세문학]	[중세문학]
삼국-통일신라시기(기원전-9세기) 문학	삼국시기의 문학 (기원전 1세기-7세기 전반기)
	통일신라시기 문학 (7세기 후반기-9세기)
고려시기(10-14세기)문학	고려시기의 문학 (10세기-14세기)
이조전기(15-16세기)문학	이조전기의 문학 (15세기-16세기)
이조중기(17세기)문학	이조중기의 문학 (17세기)
이조후기(18-19세기 중엽)문학	이조후기의 문학 (18-19세기 중엽)

위 도표를 보면, 『간사』는 북한의 『문학사』 시대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술하되, ‘고려시기의 문학’만은 『고전문학사』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전문학사』는 조선시기의 문학만은 북한의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나누고 그 나머지는 북한의 문학사와는 달리 ‘상고시기문학/삼국-통일신라시기 문학/고려시기 문학’으로 시대구분하였다. ‘상고시기문학’과 ‘삼국-통일신라시기’의 시대구분 설정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조선시대 문학의 시대구분에 있어 ‘이조중기 문학’은 이 시기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넘어오는 일종의 이행기적 성격을 띤 역동적 시기임과 이 시기에 ‘반침략 애국 투쟁-애국적 경향의 작품’이 많이 창작된 점을 고려하여 한 시기로 설정한 듯하나, 문학장르의 변동이나 문학창작 담당계층의 변동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한 시기로 설정함은 무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고려시기 문학’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 문학사적 제 현상이 뚜렷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한 시기로 묶음은 이해되지 않는다.

중국조선족 문학사가의 문학사 서술체제는 북한의 문학사 서술체제를 따르고 있다. 매 시기의 문학사 서술에서 제일 먼저 문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기 위해 시대적 배경(당시기의 사회제도·경제구조·정치 및 사회적 의식형태·다른 예술의 발전상태 등과 당시기에 생존한 진보적 작가와 당시기에 산

생된 진보적 문학작품)을 총론으로서 언급하고 그에 의거하여 각론을 전개하되 인민구전문학부터 서술하였다. 문학사가 진보적인 인민의 문학과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문학으로 대립되어 있으면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문학이 승리를 해온 역사라고 하는 문학사의 합법칙적 발전과정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⁶⁾ 그리고 그 다음 당시기의 진보적 작가와 문학발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창작작품을 장르별로 분류하여 서술하되 연대기적으로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문학사에 등재된 진보적 작가와 작품의 취사선택은 『고전문학사』와 『간사』가 거의 같다. 이 두 문학사에서 약간의 연보라도 기술한 작가들 보면, 『고전문학사』에서는 설총·설요·혜초·충담사·월명사·왕거인·최치원·정지상·김부식·이인로·임춘·오세재·김극기·이규보·최자·일연·이재현·이곡·김종서·정극인·김시습·성현·남이·이행·어무적·어숙권·이달·정철·이순신·임제·박인로·권필·허균·윤선도·김만중·박지원·조수삼·정약용·김립 등이고, 『간사』에서는 설총·김대문·혜초·정법사·월명사·최치원·박인량·정지상·이인로·김극기·이규보·진화·설손·윤여형·김종서·김시습·성현·남이·어무적·정철·황진이·임진·임제·박인로·허난설헌·권필·허균·김만중·박지원·정약용·김립 등이다.

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의 주제사상 영역은 ① 봉건지배층의 부패상과 무능력을 풍자 비판한 것 ② 봉건사회의 제 모순을 폭로하고 불합리한 현실을 반영한 것 ③ 애국주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것 ④ 외침에 대한 항거투쟁을 그린 것 ⑤ 인민의 노동생활과 인정세태를 반영한 것 ⑥ 인민의 아픔담고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그린 것 ⑦ 조국의 자연산천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노래한 것들이다.

예로써 '삼국시기 문학'에서 다룬 민간가요작품에 대한 주제사상의 분류를 보면,

(1) 『조선고전문학사』

- ① 당시 인민들의 노동생활과 인정세태를 반영한 가요 : 도술가·회소곡·치술령곡·목주가·달도가·사모곡·정읍사

36)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의 우리 문학사 인식, 창작과비평사, 1991, p. 23.

- ② 인민들의 반침략투쟁과 애국주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 : 내원성 · 무등산가 · 해론가 · 양산가
- ③ 봉건적 착취 압박으로 하여 시달리던 인민들의 어려운 생활처지를 보여준 가요 : 방아타령 · 선운산가 · 지리산곡
- ④ 봉건통치자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토로한 가요 : 연양 · 물계자가 · 실향가³⁷⁾

(2) 『조선문학간사』

- ① 근로인민들의 노동생활과 인정세태를 노래한 가요 : 도술가 · 회소곡 · 방아타령 · 사모곡 · 정읍사 · 풍요 · 서동요
- ② 반침략 투쟁과 애국주의 사상감정을 노래한 가요 : 내원성 · 무등산
- ③ 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표현한 가요 : 연양 · 물계자가 · 실향가
- ④ 멀리 떠나간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생활과 심정을 보여주면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가요 : 동동³⁸⁾

이와 같이 주제를 분류하였는데, 참고 삼아 북한의 『문학사 I』의 분류를 보면,

- ① 인민들의 노동생활을 노래한 가요 : 회소곡 · 방아타령
- ② 애국감정을 노래한 가요 : 내원성 · 무등산 · 연양
- ③ 인민들의 아름다운 도덕적 모습을 노래한 가요 : 명주 · 가시리 · 사모곡 · 정읍사 · 동동³⁹⁾

으로 분류하였는데, 고려가요 ‘동동’과 ‘가시리’를 고구려의 구전가요로 취급하고 있다.

인민성과 민족적 특성을 진실하게 부각시키는 인민구전문학은 인민대중의 집체적 창조물로서 현실반영에 있어서 민감하고 진실하며 인민들의 이해관계와 역사발전의 진보적인 경향을 예술적으로 반영한 문학⁴⁰⁾이라 하여 북한 문학사나 중국조선족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 서술의 시대적 하한시기를 보면,

- ① 『문학사』에서는 민요작품은 7세기 후반기-9세기만 제외하고 19세기 중

37) 허문섭, 앞의 책, pp. 56-61.

38) 박충록, 앞의 책, pp. 32-37.

39) 김춘택, 앞의 책, p. 56.

40)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에서 서사문학과 구전문학의 호상관계와 그 발전의 합법칙성, 김일성대출판사, 1984, p. 51.

엽시기까지, 설화작품은 10세기-12세기 전반기만 제외하고 19세기 중엽시기까지 서술하였다.

② 『문학사 I』에서는 민요작품은 이조후반기까지, 설화작품은 이조전반기까지 서술하였다.

③ 『고전문학사』에서는 민요작품은 고려시기까지, 설화작품은 삼국-통일신라시기까지 서술하였다.

④ 『간사』에서는 민요작품은 이조중기까지, 설화작품은 삼국시기까지 서술하였다.

이는 문헌의 신빙도 여하로써 작품을 선정하여 서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 문학사보다 중국조선족 문학사가 더 객관성을 유지하고 인민구전문학을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새로운 문학양식의 발생·발전과정에 대해서는 합법칙적 발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후 문학과계의 계승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문학사 서술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고전문학사』에서 시가의 발생·발전부분만 예를 들어 보면,

○삼국시기 구전가요들은 당시 국어시가, 특히 인민국어가요의 발전 변모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것은 특히 조선 최초의 국어정형시형식인 향가의 출현과 서정시 문학의 발전을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pp. 60-61)

○10구체 향가형식은 조선 최초의 정형시형식으로서 의의있을 뿐 아니라 후세의 정형시형식들인 경기체가와 시조, 그리고 고려 국어서정가요 등 새로운 민족시가형식들의 출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하여 조선 고전시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p. 63)

○(고려의) 이 서정가요들에서는 선행한 민간가요와 향가 등 민족시가형식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분절의 단절가형태 뿐 아니라 분절가, 특히는 후렴구를 가진 여러 가지 분절가 형태를 새롭게 발전시켰는데 …… 후세의 서정시가, 특히 인민서정시가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고려말의 시조와 이조초기의 가사 등 새로운 민족시가형식들의 출현에도 많은 적극적 영향을 주었다.(p. 200)

○경기체가는 13세기 전반기에 출현한 국어정형시형식의 하나로서 10구체 향가형식과 계승적 관계를 갖고 있다. …… 이 시가체는 당시 민족시가형식의 발전 면모를 보여주고 또한 시조와 같은 새로운 정형시형식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시가사적 의의를 가진다.(pp. 200-202)

○ 시조형식의 발생연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10구체 향가와 경기체가, 고려가요 등 재래의 민족시가형식들의 작시법상의 경험들을 다방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면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형시로서의 시조형식의 보다 직접적인 연원은 10구체 향가와 경기체가에서 찾게 되는바 이는 즉 3장적(3분단적)구성에 의한 10구체 향가형식이 6구체 구성형식을 가진 경기체가를 거쳐 드디어 평시조와 같은 3장6구의 새로운 정형시로 계승·발전되었다는 것이다. …… 시조문학형식은 조선민족의 언어적 특성, 정서적 생활과 미학적 기호 등에 수용되는 대표적인 민족정형시형식으로 출현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중세 서정시문학의 발전과 시가문학의 출현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하여 중요한 시가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pp. 203-207)

○ 가사체시가는 경기체가나 시조와 같은 정형시들의 기본 율조와 고려서정가요의 장가적 구성 등 선행한 민족시가형식들의 합리적인 계 요소들을 계승하여 나타난 새로운 시가형식이었다.(p. 235)

이와 같이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 한 문학형식의 발생·발전의 과정을 전후 문학형식과의 유기적 연결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한 문학형식의 발생·발전은 당시대의 문학형식의 발전을 요구하는 사회의 객관적 요구 즉 역사무대에 진출한 새로운 계층의 사회미학적 기호에 수용하여, 선행한 문학형식에서 이미 축적한 창작법상의 경험들을 기초로 해 선행 문학형식의 형식적 제한성을 일정 정도 극복하고 계승·발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조선족 문학사가는 북한의 문학사 서술과 같이 한 문학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논함에 있어서 작품 속에 그 시대의 선진적 사상내용이 얼마만큼 표현되어 있고, 그 시기의 인민생활이 얼마나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전 시기의 문학장르가 지니고 있던 제한성을 얼마만큼 극복하고 민족적 특성에 맞추어 새롭게 창작되어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그 의의를 규정할 때 부정적 측면(제한성)과 긍정적 측면(진보성)을 아울러 서술하였다.

“『홍길동전』은 반봉건적 진보적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도 제한성이 있다. 그것은 홍길동이 율도국을 정복하고 율도당이 되는데, 이 이상적인 왕국은 봉건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 이상적인 왕국은 ‘어진 임금’이 다스림으로써 거기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자는 데 지나지 않는다. 작품에서는 또 율도국에 가서 왕비 외에 첩을 하는 데서 축첩제도에 대한 불철저한 비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소설

「홍길동전」은 처음으로 봉건통치배들과 대결하여 적극적으로 싸우는 인간형 상을 창조하고 농민 봉기군을 등장시켰으며 왕을 비롯한 봉건 통치배의 무 능력과 취약성을 발가놓으면서 이조봉건사회의 불합리성과 봉건적 적서차별의 악패를 보여준 점에서, 그리고 중세소설형식의 발전에 장편소설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딘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⁴¹⁾

그리고, 피지배계층에 속하지 않는 진보적 작가의 작품을 분석·평가함에 도 인민성·주체사상성·민족적 특성과 아울러 그 시기 인민의 사상 미학적 요구나 지향을 얼마만큼 바르게 파악하고 반영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출하여 문학적 가치성과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하여 기술하되, 평결부분에서 반드시 작가의 계급적 및 시대적 제한성이나 사상적·세계관적 제약성을 적시하였다.

예로써 고려후기의 걸출한 애국시인이며 대표적인 사실주의 작가인 이규보에 대해 『고전문학사』에서

“그의 창작에는 그 시대 인민들의 생활, 봉건통치자들의 죄악, 관료통치 제도의 불합리와 모순, 외적에 대한 반침략투쟁 등 광범한 사회현실적인 문제들이 취급되었다. 그는 특히 당시 조선농민들의 운명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고 억압·착취당하는 농민 - 인민의 형상을 보여주 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의 불평의 목소리도 진실하게 대변하였다. 그러나 이규보는 자기가 통찰한 그 사회적 제 모순의 근원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 수 없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성스런 임금’과 봉건국가의 ‘인정’에 기탁하고 있었는 바 이 ‘인정’에 의하여 봉건통치자들의 착취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불합리한 일부제도를 고침으로써 사회적 모순을 완화시키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창작에서 고통받는 농민들의 운명을 그처럼 동정하고 그들의 불평의 목소리까지 대변하면서도 당시 농민투쟁의 대고조기의 시대적 현실, 특히는 당시 인민들의 반봉건적 동향을 직접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그의 창작의 본질적인 계급적·세계관적 제약성이었다.”⁴²⁾

라고 하여, 이규보가 당시 농민투쟁의 대고조기의 시대적 현실을 인식하고 당시 인민의 반봉건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혁명적 작품을 쓰지 못했음은 그의 계급적·세계관적 제약성에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41) 박충록, 앞의 책, pp. 167-168.

42) 허문섭, 앞의 책, pp. 151-152.

끝으로 가요작품의 생성시기나 귀속문제 및 작가의 연보에서 우리 학계와 달리 기술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두고자 한다.

먼저 가요작품부터 언급하면 『간사』에서는 「동동」을 고구려의 인민가요, 「사모곡」을 신라의 인민가요로 취급하고 있고, 『고전문학사』에서는 「사모곡」을 신라의 민간가요, 「동동」을 고려국어서정가요로 취급하고 있다.

북한의 국문학계에서 우리 학계의 견해와 달리 하는 작품을 보면,

1956년도 『조선문학사(Ⅰ-XⅣ세기)』(교육도서출판사) : 「정읍사」는 신라 가요, 「동동」·「가시리」·「사모곡」은 고려인민가요로 기술.

1959년도 『조선문학통사(상)』(과학원출판사) : 「동동」·「사모곡」·「가시리」는 고려인민가요로 기술.

1977년도 『조선문학사(고대중세편)』(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사모곡」은 신라의 구전가요, 「정읍사」는 백제의 구전가요, 「동동」·「가시리」는 고려국어가요로 기술.

1982년도 『조선문학사Ⅰ』(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동동」은 고구려의 인민가요, 「정읍사」는 백제의 인민가요, 「사모곡」은 신라의 인민가요, 「가시리」는 세나라시기의 인민가요로 기술.

1988년도 『조선문학개관』(사회과학출판사) : 「정읍사」는 백제의 개인창작가요, 「사모곡」은 신라의 창작가요, 「동동」·「가시리」는 고려국어가요로 기술.

1990년도 『조선문학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동동」은 고구려의 인민가요, 「정읍사」는 백제의 인민가요, 「사모곡」은 세나라시기의 인민가요로 기술.

1991년도 『조선문학사(원시-9세기)』(사회과학출판사) : 「정읍사」는 백제의 가요, 「사모곡」은 신라의 가요, 「동동」은 고구려의 가요로 기술.

북한 국문학계에서는 1977년부터 「사모곡」은 신라의 가요로, 「정읍사」는 백제의 가요로 취급하였고, 1982년부터 「동동」을 고구려 가요로 취급하였고, 「가시리」를 삼국시기 고구려의 가요로 취급하였으나 이 후자에 대해선 아직 완전 함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듯하다. 현종호의 『조선국어고전시가사연구』(교육도서출판사, 198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사모곡 : 전기 신라의 인민가요로 인정되는 것은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 신라조에 있는 '목주'에 대한 기록과 18세기 실학파의 학자 안정복의 『대목지초』에 「사모곡」이 대목지방(고려 때 목주로 개칭)가 요라고 지적되고 있는 사실에 기초한다.(p. 116)

정읍사 : 660년 백제의 멸망 이전에 '정읍'이라는 이름조차 아직 나오지 아니하였던 정촌일대의 망부석 설화와 함께 유행한 가요다.(p. 95)

가시리 : 고구려의 설화 「온달전」과 관련하여 나온 가요다.(p. 69)

동 동 : 『성종실록』 권 132, 12년 8월 을사조의 중국상사(上使)와 왕과의 대화에 의거하면 삼국시기 고구려의 '동동춤'에 맞추어 부른 고구려 인민들의 가요다.(p. 58)

그런데 현종호는 「가시리」에 대해 다시 고려시대에 나라를 지키는 싸움마당에서 죽은 남편과 이별하는 여인의 슬픔을 노래한 국어서정가요라 하였다.⁴³⁾

이상과 같은 북한의 국문학계 가요작품의 생성시기와 귀속의 비정을 고려하였음인지 『고전문학사』에서는 「가시리」와 「동동」에 대해 '최근의 일부 역사 저작과 문학사 저작들에서는 「가시리」와 「동동」을 삼국시기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고증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관례대로 고려가요에서 취급한다.'⁴⁴⁾는 註를 붙이고 「동동」은 이미 떠나간 임을 그리며 외롭게 살아가는 한 도시평민부녀의 불우한 처지를 노래한 것이고, 「가시리」는 정든 임과의 이별의 정회를 노래한 국어서정가요라 하였다.

다음, 작가의 연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이인로에 대하여 『고전문학사』에서

“이인로(1152-1220)는 '해좌칠현'의 중심인물이며 대표적 낭만주의 시인이 다. 그는 한때 조정에서 우간의대부라는 비교적 높은 벼슬을 하였으나 무신정변 때에 겨우 몸을 피해 중으로 가장하고 장기간 산중 은거생활을 한 사람이다.”⁴⁵⁾

라 하여, 이인로를 낭만주의 시인이라 한 점은 차치하고서 문맥을 보면 이인로는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무신정변 때 몸을 피해 중으로 가장하고 장기

43) 현종호, 『조선문예발전사연구 I (고대중세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p. 315.

44) 허문섭, 앞의 책, p. 188.

45) 허문섭, 앞의 책, p. 123.

간 산중 은거생활을 했다고 하였는데,⁴⁶⁾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이인으로 : 1152(의종 6)-1220(고종 7). 고려 무신집정기 때의 문신. ……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었는데, 화엄승통인 요일(寥一)이 거두어 양육하고 공부를 시켜, 유교 전적과 제자백가서를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 1170년(의종 24) 그의 나이 19세 때 정중부가 무신란을 일으키고 ‘문관을 쓴 자는 서리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하며 횡행하자, 피신하여 불문에 귀의하였다. 뒤에 환속하여 25세 때에는 태학에 들어가 육정을 두루 학습하였고, 1180년(명종 10) 29세에는 진사과에 장원급제함으로써 명성이 사림에 떨쳤다.”

라 하여 무신정변 뒤에 관계에 나아가 비서감 우간의대부를 역임하였던 것이다.

또 『간사』에서 허균을 서자라 하였는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펴낸 위의 책에서는 ‘성(箴)이 이복형이며, 봉(筍)과 난설현(蘭雪軒)이 동복형제이다.’라 하여 허균이 서출(庶出)이 아님을 서술해 놓았다. 만일 허균이 서출이라면 손곡(孫谷) 이달(李達)처럼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간사』에서는 허균이 서자라 하고 그의 스승인 이달이 서자임으로 허균이 그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혹과 불만을 품게 되고, 이러한 사상정신적 상태는 소설 『홍길동전』의 사상적 지향을 규정짓는 데 큰 작용을 하였다⁴⁷⁾고 서술하고 있다. 『재판받는 쥐(서육기)』는 작자·연대 미상의 우화 소설인데, 『고전문학사』에서나 『간사』에서 임제의 대표적 소설작품으로 다뤄 문학사적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한다면, 고대 설화에 있어서 신화와 전설의 분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 상대의 설화인 단군신화·해모수신화·주몽신화·박혁거세신화·김수로왕신화(가락국 건국신화) 등을 취급함에 있어서 북한 학계에서는 봉건사회형성 이전시기(노예소유자 사회시기까지)의 설화는 신화로 처리하여 단군신화·해모수신화와 칭하고, 봉건사회 형성기의 건국주들의 설화는 역사설화로 처리하여 주몽전설·박혁거세전설·김수로왕전설·온조전설이라 칭하고 있다. 『고전문학사』와 『간사』도 신화와 전설에 대한 정의도 내

46) 북한의 『문학사』·『문학사 I』과 『간사』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다.

47) 박충록, 앞의 책, p. 164.

리지 않고 북한 학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근자에 문일환이 『조선고대신화연구』(민족출판사, 1993)⁴⁸⁾에서 우리와 같이 삼국의 건국주의 설화는 물론 성씨의 시조설화까지도 신화로 처리하면서 '조선고대신화는 기타 민족신화에 비해 보다 강한 전설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편, 또한 역사적이면서도 정치성이 강한 것으로 주목된다.'라 하여 우리 고대 신화의 성격을 지적하고, 우리의 고대신화의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면 - 주성격·지역적 특성·사고방식·문화적 원류(원형)·세계신화와의 비교·민족의 문화정신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였다.

4. 결 론

중국 연변지방 조선족의 한국문학사의 서술태도와 서술체제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이제 그 문제점만 지적해보면,

첫째, 문학사가 선진적인 인민문화와 반동적인 지배계급의 문학으로 대립되어 있으면서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의 승리를 해온 역사라는 문학사에 대한 인식에 집착되어, 중요한 문학작품의 창작자인 지배계급의 문학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문학사 서술이 온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둘째, 우리의 문학발전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을 그 시대 민족문학의 총체적 실상 속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여야 마땅한데도, 일부 작품에 한하여 편파적 선입견을 가지고 분석·평가함으로써 문학사 연구에 한계성을 드러냈다.

셋째, 객관적 현실을 정당하게 인식하고 진실하게 반영한다는 사실주의적 경향의 문학작품을 중시하여 그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다 보니 문학사 서술의 전체적 균형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하였다.(『간사』의 윤여형의 「도톨밤의 노래」 경우)

넷째, 학술용어의 사용에 북한의 문학사 기술에 보이는 투쟁적 인민적 용어를 그대로 옮겨 씌으로써 조선족의 언어순화에 다소 영향을 끼칠 위험요소

48)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연구, 룡녕민족출판사, 1993, pp. 120-219.

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 : 봉건통치배, 중농, 사기 협잡 등)

다섯째, 우리 문학이 내재적 계기에 의하여 자주적·주체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합법칙적으로 밝히려는 북한의 문학사 기술태도는 중국문학의 영향관계를 고의적으로 배제하였는데 반하여 중국조선족 문학사가는 우리 문학의 발전과정에 중국문학의 영향관계를 논급함으로써 우리 문학사 서술을 보다 올바르게 서술할 수 있게 했다.

여섯째, 북한의 문학사기술이 ‘문예는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그때그때 정치이념의 지향성과 실천성에 따라 한 문학작품의 가치는 달리 평가되는 경향이 있는데, (『심청전』의 경우) 조선족 문학사에는 그러한 기술태도를 지양함으로써 문학작품의 분석·평가에 있어서 일정한 객관성을 유지하였다.

끝으로 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조언을 해주신 중앙민족학원의 문일환교수님, 연변대학 채미화교수님, 북경대학의 박충록교수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